

백원국 2차관, “출퇴근, 장거리 이동 불편 최소화” 강조 - 철도노조 파업 2일차, 비상수송대책 점검… 무리한 파업 유감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(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)은 9월 15일(금)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(영상)*를 주재하여 열차 운행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.

* 일시/장소 : 9.15.(금) 15:00 ~ 15:30 / 정부세종청사 상황실

** 참석 : 국토부 제2차관(주재), 한국철도공사, SR, 경기도, 인천시, 부산시, 버스연합회 등

- 철도노조 파업 2일차인 9월 15일(금) 06시 기준, 파업 참가율*은 26%이며, 09시 기준, 열차는 평시대비 79%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.

* 코레일 출근 대상자 18,302명 중 4,783명 파업 참여

-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고, 1·3·4·7호선 증회 운행, 출퇴근시간대 광역· 시내버스 집중 배차, 택시 운행 독려 등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.

- 이날 회의에서 백 차관은 비상수송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, “광역 전철을 이용한 출퇴근, KTX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”하다고 강조하였으며, “비상시, 확보된 예비버스 차량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상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- 또한, 15일 새벽 수도권 전철 4호선 하행선에서 작업차량이 탈선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, “철도노조 파업으로 차량 정비 등 철도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
- 마지막으로, “철도노조가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한 파업을 2일째 이어가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”이라면서, “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달라”고 강조했다.

2023. 9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